



Russia·CIS Talk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러시아-CIS학과 원우 논문

Article

러시아의 ‘샤프 파워’ 미디어, 서방의 균열을 파고들다

심종현

박사과정, 러시아·CIS 정치 전공

sjh950125@gmail.com

러시아와 ‘샤프 파워’ 전략

21세기에 접어들면서 부상한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 주도의 단극(unipolar) 질서에 도전장을 내밀기 시작했다. 권위주의 국가로 분류되곤 하는 양국은 자국의 매력 요인을 활용하는 ‘소프트 파워(soft power)’ 전략 대신 타국의 분열과 갈등을 조장해 그들의 힘을 약화시키는 전략을 활용하고 있다. 2017년 미국 민주주의재단(NED)의 워커(C. Walker)와 러드윅(J. Ludwig)은 바로 이러한 파워 구사 전략을 ‘샤프 파워(sharp power)’로 정의했다.



RT의 탄생

워커와 러드윅에 따르면, ‘샤프 파워’ 전략을 수행하는 데 있어 중국은 ‘일대일로(一帶一路)’로 대표되는 경제적 방법론을 채택해 자국에 대한 비판을 억제하고자 한다면, 러시아는 군사·안보적 방법론을 채택해 상대방의 정보를 교란·조작하고, 그들의 제도와 가치를 저해하고자 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러시아가 수행하는 ‘샤프 파워’ 전략의 핵심 도구는 바로 대외용 미디어다. 그리고 이러한 전략의 일환으로 러시아 당국이 설립한 매체가 바로 RT다. ‘러시아 투데이(Russia Today)’라는 이름으로 출발한 RT는 구 소련권 국가들에서 연달아 발생한 ‘색깔 혁명’과 북대서양 조약기구(NATO)의 동유럽 확장으로 러시아의 안보 위기가 고조되던 2005년 12월 개국했다. 국영 통신사 리아 노보스티(RIA Novosti)에 의해 설립된 RT는 이른바 ‘러시아판 BBC’를 표방하며 국제

사회에 러시아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러시아의 국가 이미지를 개선하는 것을 사명(使命)으로 했다.

첫 번째 전환점:

2008년 러시아-조지아 전쟁

2008년 8월 러시아는 조지아 내 분리주의 지역인 남오세티야의 자국민 보호를 명목으로 조지아를 침공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이 전쟁은 NATO의 구소련권 확장을 저지하기 위한 러시아의 실력 행사였다. 이 전쟁을 통해 러시아는 '강한 러시아'의 부활을 증명하고자 했던 것이다.

러시아의 대외정책이 변화함에 따라 RT의 성격도 변화했다. RT는 'Question More'라는 슬로건 아래 서구 사회의 모순과 문제점을 지적하고, 서구 미디어의 신뢰성을 공격하며 '대안 언론'을 자처하기 시작했다. 사명(社名)을 러시아 투데이에서 RT로 변경하며 '러시아'라는 정보 발신지를 희석했으며, 유튜브·트위터와 같은 뉴미디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했다.

두 번째 전환점:

2014년 우크라이나 위기

2013년 유로마이단 시위로 촉발된 우크라이나 위기는 이듬해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과 돈바스 지역 친러 공화국들의 독립 선언으로 이어지며 러시아와 서방 간의 관계를 급격히 악화시켰다. 우크라이나의 친서방화와 NATO 가입 시도를 용인할 수 없는 러시아는 서방을 향한 '샤프 파워' 전략을 한층 더 강화했다.

그 선봉에 선 RT는 우크라이나를 '파시스트'로 묘사하며 러시아의 행보를 정당화했다. 2014년 7월 말레이시아 항공 MH17 여객기 격추 사건 당시에도 RT는 러시아의 지원을 받는 돈바스 반군의 소행이라는 국

제사회의 잠정적 결론을 부인하면서 러시아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변호했다.

그해 11월에는 소련 시기 '라디오 모스크바'로 개국했던 국제 단파방송국 '러시아의 소리'를 온라인을 중심으로 한 '스푸트니크(Sputnik)'로 재편하면서 대외용 미디어를 현대화했다. 소련이 쏘아 올린 인류 최초의 인공위성으로, 냉전기 미국에 커다란 충격을 안겼던 스푸트니크를 이름으로 활용한 것은 러시아의 의도적 행보였다. 실제로 스푸트니크는 RT와는 달리 정제되지 않은 거침없는 논조로 서방에 대한 원색적 비난을 가해 서방으로부터 '황색 언론', '선전 매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세 번째 전환점: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러시아의 공세적인 대외용 미디어 활용에도 서방은 이들 매체에 대한 제재에 소극적이었다. 오히려 RT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서방 주요국에 지사를 설립하며 확장 행보를 보였다. 2016년 영국의 유럽 연합(EU) 탈퇴 국민투표 및 미국 대통령 선거에 대한 러시아의 개입 의혹과 2018년 전직 러시아 정보원인 스크리팔 부녀에 대한 암살 미수 사건에도 RT와 스푸트니크에 대한 서방의 제재는 솜방망이 수준이었다.

하지만 2022년 2월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러시아 대외용 미디어 제재에 인색했던 서방의 태도를 180도 돌려놓았다. 전쟁 직후인 3월 2일 EU 집행위원회는 RT와 스푸트니크의 역내 송출을 전면 금지했으며, 영국 역시 3월 18일 RT의 방송허가를 취소했다.

서방 기업들도 제재에 동참해 나섰다.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은 3월 11일 RT와 스푸트니크 등 대외용 미디어뿐만 아니라 러시아-24, 페르비 채널, NTV 등 러시아의

대내용 방송국들이 운영하는 채널까지 전면 폐쇄하는 조치를 취했다. 러시아 정부는 이에 대해 부당한 검열이라며 반발했지만, 서방은 국가의 통제를 받는 러시아 매체를 '전쟁을 부추기는 러시아의 선전 도구'로 규정하며 러시아의 반발을 일축했다.

‘샤프 파워’ 전략의 미래는?

그렇다면 우리는 현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이라는 ‘하드 파워(hard power)’ 전략을 선택함으로써 ‘샤프 파워’ 전략은 자연스럽게 폐기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샤프 파워’ 전략의 핵심적 역할을 하던 RT와 스푸트니크 등 러시아의 대외용 미디어는 서방의 강도 높은 제재로 인해 접근성이 크게 악화되면서 본래 기능을 수행하기 어려워진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러시아의 ‘샤프 파워’ 전략은 여전히 유효하다.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서방에서 균열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유럽은 각국의 이해관계 충돌로 인해 대우크라이나 지원 및 대러 제재 방법론에 있어서 통일된 견해를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 러시아산 자원 의존도가 매우 높기 때문이다. 전 세계적으로도 식량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인플레이션은 이미 현실이 되고 있다. 러시아의 ‘샤프 파워’ 전략은 바로 이러한 틈새를 파고들고 있다. 러시아는 하드 파워를 통해 자기 세력권을 보존함과 동시에 ‘샤프 파워’를 통해 자국의 존재감과 영향력을 과시하고, 궁극적으로는

서방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고자 하는 이른바 ‘복합적 파워 전략’을 활용하고 있다.

러시아의 ‘샤프 파워’ 전략은 비단 유럽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러한 러시아의 파워 전략 문제가 한반도를 비롯한 동아시아에서도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이미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 국면에서 러시아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고, 러시아가 한국을 비우호국으로 지정하면서 한반도 역시 러시아의 파워 전략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게 되었다. 특히 러시아의 성패에 따라 중국의 대한반도 파워 전략 역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한국은 ‘샤프 파워’의 대표 주자인 러시아와 중국을 모두 인접국으로 두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주변 강대국들의 파워 전략에 대해 면밀히 분석하고,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편집인 ■ 김민식 주소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107 TEL ■ 02-2173-2556

홈페이지 ■ ruscis.hufs.ac.kr

후원 ■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기획 ■



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연구소
INSTITUTE OF RUSSIAN STUDIES
HANS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 drcs@hufs.ac.kr 페이스북 ■ <https://www.facebook.com/hufsrussiacis/>